

# 매력적인 서브남, 강영석의 발견

JTBC 종방극 '웰컴투 삼달리' '부상도'역  
이제야 로맨스 맛 알아 "멜로 욕심 난다"



JTBC 종방극 '웰컴투 삼달리'의 '부상도'(강영석)는 기존 드라마 서브남(두번째 남자 주인공)과 달랐다. 재벌 3세가 아닌 흠수저였고, 어머니가 차린 핏집이 대박 낫지만 여전히 고무장갑을 끼고 장화를 신은 채 일하곤 했다. 처음엔 노란색 람보르기니를 몰고 다니는 모습이 어색해 보였지만, 어느새 삼달리의 상징이 됐다. '조삼달'(신혜선)만 바라보며 짝사랑의 정석을 보여줬는데, 이 드라마는 '강영석의 발견'이라는 호평이 쏟아졌다. 강영석(32)은 이제야 로맨스 맛을 알게 됐다며 "멜로 욕심을 내고 싶다"고 밝혔다.

"작가님께 (왜 람보르기니를 타는지) 물어봤다. 너무 가난하고 돈 쓸 데가 없어서 그렇다고 하더라. 상도는 착하고 순진해서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보여주기식으로 타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촬영하다보니 괜찮더라. 람보르기니를 몰 때 살짝 긴장했다. 혹시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액셀을 세게 밟으면 차 대어 업체 팀장님이 '오-안돼요'라며 제어를 했다. 박카스 박스에서 돈 문지를 꺼낼 때도 대리 만족했다.

현금 800만원이 들어갔는데, 몰래 주머니에 넣어 보기도 했다. 소품팀이 감시하더라.(웃음)"

이 드라마는 개전을 지켜온 용 '조용필'(지창욱)과 개전을 떠나 승천한 용 '조삼달'(신혜선)이 모든 걸 잃고 추락한 뒤 고향에서 사랑을 찾는 이야기다. '동백꽃 필 무렵'(2019) 차영훈 PD와 '고백부부'(2017) 권혜주 작가가 만들었다. 1회 5.2%(닐슨코리아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시작, 16회 12.4%로 막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을 재미있게 봐 기대가 컸다며 "해녀 선배님들이 나올 때 그 느낌이 확 나더라. 감독님은 딱 동백꽃 같다. 밝은 에너지가 있어서 현장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준다"고 귀띔했다. 넷플릭스 TV쇼 부문 비영여권 톱10에 들었지만,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명 밖에 안 늘었다. 시청률도 나 때문에 잘 나가는 게 아닌 것 같다"며 웃었다.

상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16년 넘게 삼달만 바라봤다. 가난해서 한 번도 고백하지 못했고, 항상 용필에게 양보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런 캐릭터를 처음 해봤다. 100점

만점에 50~60점 정도 밖에 못 줄 것 같다. 다음번에 하면 더 잘하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짜사랑한 기간이 짧은 게 아니라, 몇십년 아니냐. 순수한데 약간 변태 같고 무섭기도 했다. 어떻게 보면 광기 아니냐"고 해 웃음을 줬다. "ENFP라서 친한 친구의 전 여친을 탐하는 일은 상상도 안 된다"며 "몰입하기 약간 힘들었지만, 어차피 진짜 친구는 아니었으니까. 배우니까 해내야 한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처음에 상도가 이불을 걸으면서 얼굴이 나오는 장면 있지 않느냐. 감독님이 '늑대의 유혹' 강동원 선배처럼 해야 한다고 해 부담됐다. 얼마나 힘들었냐. 강동원 선배와 똑같은 건 성이 강씨인 것 밖에 없다. 입꼬리가 안 올라가서 여러 번 NG 됐다. 모니터링 할 때도 눈을 가리고 봤다. 계속 차, 하관, 발, 목소리 등만 나오다가 처음으로 얼굴이 나와서 잘 해야 했다. 약간 서브남을 기대하게 만든 설정 같다. 내 성에는 안 차서 '더 잘했어야 하는데...'라는 아쉬움이 있다."

상도의 짝사랑이 이뤄지길 응원한 시청자도 많았는데 "솔직히 결말을 만족하지 않는다. 뭐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삼각관계면 변이 3개가 있어야 하는데, 2개 밖에 없지 않았느냐. 점선이라도 있었으면 했는데, (삼달이) 아예 눈치도 못 채고 끝났다"면서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깝고 몰입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고구마' 였다고? 나도 보면서 답답했지만, 장단점이 있는 것 같다. 완전히 친구로만 가서 상도의 짝한 느낌이 나왔다"며 받아들였다.

지창욱(36), 신혜선(34)과 절친 케미스트리도 돋보였다. 특히 지창욱과 호호하며 로맨스 연기를 배웠다며 "초반에 내가 취해서 '삼달이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신이 있다. 창욱 형이 소주를 마시고 나를 딱 보는데 사슴 눈 같더라. '저게 멜로구나' 싶었다. 형은 그렇게 태어난 것 같다. 그냥 '왜?' 하고 본 건데 멜로였다"고 극찬했다. "혜선 누나도 잘 받아주고 에너지가 엄청나다"면서 "어깨동무를 많이 하지 않았느냐. 누나 키가 크니까 상도가 동생 같은 느낌이 났다"고 했다.

전작인 ENA '유괴의 날'(2023)에선 상반된 캐릭터를 선보였다. 선과 악을 넘나드는데 "유괴의 날은 '인사이드'(2022)와 결이 비슷하다. 삼달리 촬영과 겹쳤는데, 해본 역은 편한 부분이 있다. 삼달리 감독님은 '착하게 웃으라'고 하고, 유괴의 날에선 '나쁘게 웃으라'고 하더라"면서 "난 육각형 같다. 못하는 게 없는 건 장점이고, 잘하는 게 없는 건 단점이다. 두루두루 잘 하는 게 배우로서는 장점 아닐까. 그래서 나쁜 역할과 착한 역할을 반반 맡는 것 같은데, 뭐든 시켜주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강영석은 2011년 뮤지컬 '화랑'으로 데뷔했다. 2017년 '변혁의 사랑'으로 매체 연기를 시작, '백일의 낭군님'(2018) '군검사 도베르만'(2022) 등으로 주목 받았다. 올해 공개하는 티빙 '우세왕후'에도 캐스팅 된 상태다. "난 항상 취준생이라고 생각한다. 프리랜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래도 운 좋게 연기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공연할 때 오디션을 진짜 많이 봤다. 슬럼프는 딱히 없었지만, 처음에 드라마를 할 때 카메라가 무섭고 어렵더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강)하는 형한테 많이 물어봤다. 지금도 첫 촬영은 항상 떨린다. 죽을 때까지 그럴 것 같다. 근데 희열감이 있다. 그래서 계속 연기하는 게 아닐까."

## 신영균·최불암...남궁원 빈소, 왕년의 스타들 추모 행렬

홍정욱 前 의원 부친상...정재계 인사들도 애도

원로배우 남궁원(90·홍경일)을 추모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빈소가 차려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엔 고인과 연기 등으로 인연을 맺은 왕년의 스타 배우들이 한달음에 달려왔다.

남궁원과 1960~70년대 한국영화 르네상스를 이끈 신영균을 필두로 최불암, 임하룡 등 수십명의 원로배우들이 이날 오전부터 조문했다.

이병헌 등 현재 한국영화를 이끄는 후배들도 빈소를 찾아 추모했다.

고인의 아들이 홍정욱 전 국회의원(울가나

카 회장)인 만큼 정재계 인사들도 대거 빈소를 찾았다. 국회의원을 지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등은 근조화환을 보내 고인을 애도했다.

남궁원은 1960~197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다. 당시 신사적이면서 빼어난 외모로 '한국의 그레고리 펍'으로 불렸다. 300여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은관문화훈장(2016)을 받았다. 홍 의원은 부친에 대해 "살아 숨진 모든 순간 아



버지의 아들로서 자랑스럽고 행복했다"고 했다.

발인은 8일 오전. 장지는 포천시 광릉추모공원이자.



## 아이유, '닭은꿀' 트위터 버드와 협업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전 세계가 사랑하는 캐릭터 트위터 버드와 특별한 협업을 한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7일 '아이유가 오는 20일 발매 예정인 미니앨범 '더 위닝(The Winning)'과 관련해 워너 브러더스 디스크버리 글로벌 컨슈머 프로덕트와 '루니 툰' 시리즈에서 많은 사랑을 받은 캐릭터 트위터 버드와 협업한 대형 프로모션을 차례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트위터 버드는 지난 1942년 첫 등장한 애니메이션 '루니 툰' 속 카니리아 캐릭터다. 당당하고 낙관적인 성격과 밝은 노란색 컬러의 귀여운 비주얼로 유명하다.

트위터 버드는 기존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모습 외 아이유의 새 미니앨범 곡 콘셉트를 적용해 각기 다른 스타일로 탄생한다. '더 위닝' 스페셜반부터 대형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다.

메인 커버에 실린 트위터 버드의 모습에 금금증이 증폭된다.

이외에도 다채로운 컬러버레이션 굿즈가 예정돼 있다.

아이유와 트위터 버드는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아이유는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속 대표 프로필 이미지로 트위터 버드를 사용해왔다. 지난 2021년 한 팬이 아이유의 캐릭터의 닭은꿀에 대해 올린 트윗 글을 올린 적 있는데, 당시 '루니 툰'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이 리트윗 해 화제를 모았다.

소속사 측은 "긍정적이면서도 선한 영향력으로 국내외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아티스트 아이유와 전 세계인에게 동심과 추억, 재미모두를 선사한 트위터 버드의 만남이 어떤 시너지를 발휘할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 엔하이픈, 5개 도시 앙코르 월드투어



그룹 엔하이픈(ENHYPEN)이 앙코르 월드투어에 나선다.

소속사 빌리프렘은 7일 엔하이픈이 미국 5개 도시에서 월드투어 '페이트 플러스 인 유에스'(ENHYPEN WORLD TOUR FATE PLUS IN U.S.)(이하 '페이트 플러스')를 연다고 밝혔다.

오는 4월24일 에너하임을 시작으로 26일 오클랜드, 28일 터코마, 5월1일 로스몬트, 3일 벨몬트 파크에서 공연한다. 엔하이픈은 지난해 9월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휴스턴, 댈러스, 뉴욕, 시카고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를 진행하며 팬 8만여명을 만났다. 약 6개월 간 총 13개 도시에서 21회 치러진 월드 투어는 지난 3일 필리핀 뉴클라크 시티 스타디움에서 마무리됐다. 일본 돗투어(도쿄돔, 교세라돔 오사카)를 펼치고, 미국 스타디움 공연장(로스앤젤레스 디그니티 웰스 스포츠파크)에 입성하는 등 글로벌 영향력을 넓혔다.

이번 앙코르 투어 '페이트 플러스'를 통해 당시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를 찾아 팬과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오는 23~25일 서울 송파구 케이에스포 돔(KSPO DOME)에서 앙코르 월드투어의 포문을 연다. 당초 24~25일 2회 공연만 예정돼 있었지만 빠르게 매진되면서 23일 1회 공연을 추가했다. 서울 공연의 팬클럽 선예매 오픈 당시 트래픽이 지난해 서울 공연 대비 13배 증가했고, 팬클럽 추첨제와 팬클럽 선예매 신청 인원도 두 배에 가까이 늘었다.

이날 앙코르 월드투어 '페이트 플러스'를 통해 당시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를 찾아 팬과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엔하이픈은 지난해 9월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휴스턴, 댈러스, 뉴욕, 시카고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를 진행하며 팬 8만여명을 만났다. 약 6개월 간 총 13개 도시에서 21회 치러진 월드 투어는 지난 3일 필리핀 뉴클라크 시티 스타디움에서 마무리됐다. 일본 돗투어(도쿄돔, 교세라돔 오사카)를 펼치고, 미국 스타디움 공연장(로스앤젤레스 디그니티 웰스 스포츠파크)에 입성하는 등 글로벌 영향력을 넓혔다.

이번 앙코르 월드투어 '페이트 플러스'를 통해 당시 방문하지 않았던 도시를 찾아 팬과 접점을 늘릴 예정이다.

엔하이픈은 지난해 9월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휴스턴, 댈러스, 뉴욕, 시카고에서 두 번째 월드투어 '페이트'를 진행하며 팬 8만여명을 만났다. 약 6개월 간 총 13개 도시에서 21회 치러진 월드 투어는 지난 3일 필리핀 뉴클라크 시티 스타디움에서 마무리됐다. 일본 돗투어(도쿄돔, 교세라돔 오사카)를 펼치고, 미국 스타디움 공연장(로스앤젤레스 디그니티 웰스 스포츠파크)에 입성하는 등 글로벌 영향력을 넓혔다.



그룹 '엔시티 위시(NCT WISH)'가 오는 21일 데뷔한다.

7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NCT 위시는 21일 '에스엠타운 라이브 2024 에스엠씨유 팰리스 @ 도쿄(SMTOWN LIVE 2024 SMCU PALACE @TOKYO)'에서 데뷔 무대를 펼친다. 같은 달 28일 데뷔 싱글 '위시(WISH)'를 각종 글로벌 음악 플랫폼에서 동시에 발매하고, 한국과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소속사 선배인 가수 보아가 NCT 위시의 프로듀싱을 맡았다. NCT 위시는 지난해 SM 프리 데뷔팀 '에스엠루키즈(SMROOKIES)'와 데뷔 리얼리티 '엔시티 유니버스 : 라스타트(NCT Universe : LASTART)'를 통해 얼굴을 먼저 알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엔시티 단체 콘

서트 '엔시티 네이션(NCT NATION)' 일본 공연 무대에 올라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NCT 위시는 '위시 포 아워 위시(WISH for OUR WISH)'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음악과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소원과 꿈을 응원하며 함께 이뤄 가자는 포부를 지닌 팀이다. 시은, 리쿠, 유우시, 재희, 료, 사쿠야 등 6명 멤버로 구성됐다.